

# '홍재일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국가유산청, 동학농민혁명 전후 사회상 담겨... 정읍 솔티도예공방 방장 기곤 씨 소장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정읍시 입암면 솔티도예공방의 방장 기곤 씨가 소장하고 있는 '홍재일기' 7책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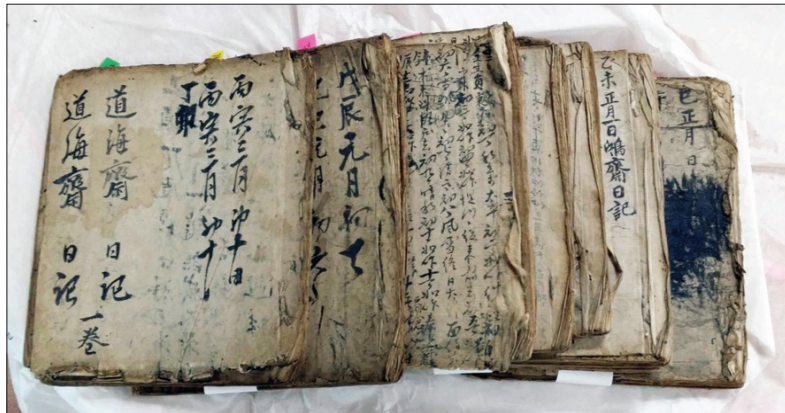
국가유산청은 '홍재일기'는 그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백산대회의 일자를 1894년 음력 3월 26일로 기록했고 1866년부터 1894년까지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기 이전 약 30년간의 물가변동, 가뭄, 세금 등과 관련된 기록과 함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당시 지역사회의 변화상과 역사적 사건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가치로 평가했다.

홍재일기를 쓴 기행현(奇幸鉉, 족보명 奇泰鉉)은 본관이 해주이며, 고봉 기대승의 형인 기대립-기효분(奇孝芬)-기방현으로 이어지는 가계이다.

초명은 행현(幸鉉), 자는 성침(聖瞻)이고, 족보명은 기대현(奇泰鉉), 홍재(鴻齋), 도해재(道海齋)는 그의 호이다.

그는 1866년 3월 1일부터 1911년 12월 31일까지 약 45년간 일기를 썼으며, 1책에는 도해재일기(道海齋日記)(1866~1867), 2책부터 7책까지는 '홍재일기(鴻齋日記)'(1868~1911)라는 제목을 붙였다.

2012년 입암면 솔티도예공방에서 확인된 '홍재일기'는 2017년이 되어서 비로소 전체 탈초가 이뤄졌고, '국역 홍재일기'(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2022)가 출간됐다. 이후 2015년부터



홍재일기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논문이 발표되는 등 학술성이 뛰어나다.

이학수 시장은 "홍재일기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사에 큰 획을 그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학 관련 자료를 수집·연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세계기록유산에 추가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재일기의 소장자 기곤 씨는 "홍재일기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까지 애쓰신 김철배 박사(임실군청 학예연구사)와 수많은 연구자들, 정읍시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홍재일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자료발굴과 연구 지원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및 근대로의 전환 과정을 보다 세밀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홍보·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은경 기자

# '검과 춤을 잇다, 운창 성계옥' 개최

국립무형유산원, 진주검무 계승 위해 일생 바친 운창 성계옥 선생 회고전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관용)은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열린마루 1층 상설전시실에서 진주검무 계승을 위해 일생을 바친 '운창 성계옥' 선생 회고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국가무형유산 진주검무 보유자였던 고(故) 운창 성계옥 선생의 기증품을 중심으로 '진주검무를 완성하다', '시사회에 몰두해 치열한 삶을 살다', '운창을 기리며' 등 세 가지를 주제로 진주검무의 온전한 전승과 전통춤의 체계적인 복원에 헌신한 그의 삶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관람객들이 직접 모형검을 잡고 영상을 보며 진주검무 동작을 따라해 볼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 진주검무의 절제되면서 화려한 춤사위를 경험할 수 있다.

전시는 사전예약 없이 개방시간(09:30~17:30, 매주 월요일 휴관) 내에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오랜 역사를 지닌 진주검무와 진주 지역 전통춤의 온전



하고 체계적인 전승을 위해 한평생 헌신한 그의 삶이 국립무형유산원의 적극행정으로 공들여 마련된 이번 전시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생생리뷰단 운영

26명 본격 활동 돌입... 문화 예술현장 방문 SNS채널 통해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생생리뷰단 26명을 선정, 본격적인 활동을 돌입했다고 밝혔다.

24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예술인 소통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예술 현장의 여러 의견을 반영, 올해부터 생생리뷰단을 운영하게 됐다.

도민으로 구성된 생생리뷰단 1기는 지난 20일 열린 발대식을 갖고 위촉장과 도민기자단 증을 받았다. 12월 말까지 총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생생리뷰단은 20대부터 60대까지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연, 전시, 세미나 등 문화 예술현장을 방문하고 그 과정을 글과 사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발대식에 참석한 한 리뷰단은 "현재 퇴직 후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예술현장의 이야기를 도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알리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우리 재단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올 한해 리뷰단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예술현장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창작지원팀(063-230-74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주영상위원회, 8000만원 규모 전북 장편영화 제작지원 작품 공모

전주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김형철)가 '2024 전북장편영화 제작지원' 작품 공모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자유 소재의 장편 극영화를 대상으로 1편의 작품에 총 지원금 8천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공모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의 단편영화 1편 이상의 연출 경력자나, 전북 소재의 제작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7월 4~11일까지다. 접수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jjc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한 후 이메일(jeonjjcc@jjcc.or.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무국(063-286-0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 연장

방문객 1만명 돌파... NS쇼핑과 특별전 재협약 체결 8월 30일까지 전시

익산시 중앙동에 진행되는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이 방문객들의 관심 속에 전시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한다.

24일 익산시에 따르면 특별전은 지난 4월 30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방문객 1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일일 평균 200명의 관람객이 전시회를 찾아 개관부터 현재까지 9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관람객들은 전시회를 관람하고 문화예술의 거리 내 근대역사관, 공방, 카페 등에서 체험과 관광을 이어가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익산시는 원도심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과 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의 거리 익산아트센터에서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관람 기간은 6월 말까지였으나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하게 이어지자 NS쇼핑과 특별전 재협약을 체결해 운영 기간을 8월 30일

까지 연장했다.

익산시는 철도 이용객과 익산시티투어 관광객의 중앙동 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람객 이벤트도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의 한 상인은 "나폴레옹 전시회 덕분에 방문객들이 식당과 카페를 찾아 지역에 활기가 든다"고 전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나폴레옹 유물 특별전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가능을 가능케 한 영웅의 의지를 되살려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을 비롯해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폴레옹 유물은 (주)하림 계열사인 (주)NS쇼핑이 판교 본사 나폴레옹 갤러리에서 상설 전시해 왔다. 김홍국 회장은 고향인 익산시 요청에 따라 이각모를 비롯한 유물의 익산 전시를 흔쾌히 수락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